

‘싶다’ 구조의 제약기반적 분석

조준호
(한려대학교)

Cho, Junho, 2001. A Constraint-based Account of ‘siphda’ Construc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9(2), 85-9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siphda’ constructions systematically and neatly with constraint-based approach suggested in HPSG. To do this the paper classifies the meaning feature of ‘siphda’ like *hope, supposition, judgment* and *euphemistic* into lexical hierarchy of ‘siphda’, and analyzes the ‘siphda’ constructions with constraints assuming that the constructions are generated by the combination of the verb and adverb phrases. (Hanlyo University)

1. 서론

본 논문은 한국어 ‘싶다’ 구조를 핵어문법의 제약이론으로 분석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싶다’ 구조를 의미적 관계에 따라 희망, 추정, 판단, 완곡한 표현의 네 가지 유형의 위계구조로 설정한다. 그리고 ‘싶다’는 부사와 결합하여 동사구를 생성한다는 것을 전제하여 ‘싶다’ 구를 분석한다.

제 2절에서는 ‘싶다’의 선행연구와 특징을 살핀다. 즉, 이 구조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희망, 추정, 주관적 사실판단, 완곡한 표현이라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통사적인 측면에서 부사구와 호응한다는 점과, 화자는 주어와 일치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제 3절에서는 핵어문법의 제약 중에서 ‘싶다’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핵자질원리(Head Feature Principle), 항가원리(Valence Principle), 구유형(phrasal type)과 관련된 몇 가지 제약을 살핀다. 제 4절에서는 ‘싶다’의 위계구조와 이 구조와 결합하는 부사어의 어휘목록을 살핀다. 그리고 ‘싶다’의 어휘구조와 이 구조를 제약이론으로 분석한다.

2. 선행연구와 특징

서정수(1996:313-9)는 한국어의 '싶다'라는 표현을 의미적으로 희망, 미확인 사실에 대한 추정, 주관적 사실에 대한 판단, 완곡한 표현으로 구분하고 (1)의 예문과 같은 유형으로 설명한다.

- (1) a. 나는 금강산 관광을 가고 싶다.
 b. 내 모자가 좀 작은 듯 싶다.
 c. 하나를 보면 그 사람 전부를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싶다.
 d. 나는 네가 좀 참아 주었으면 싶다.

(1a)에서 '싶다'는 희망(hope)을 의미하고 (1b)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추정(supposition)을 의미하고 (1c)에서는 화자의 주관에 근거하여 그 사람을 판단(judgment)을 의미하고 (1d)에서는 참아주라는 완곡함(euphemistic)을 의미한다.

서정수(1996:319-21)는 '싶다'는 통사적으로 '-고'와 호응하는 통사적 제약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싶다'가 부사구¹⁾와 함께 주로 호응한다고 본다.

- (2) a. 집에 가고 싶다.
 b. 나는 이 마을을 떠났으면 싶다.
 c. 물이 좀 차가운 듯 싶다.
 d. 저 저수지 가운데는 좀 깊을 성 싶다.
 e. 그 일이 잘 될까 싶다.

(2)에서 '싶다'는 불완전 자동사이고 '-고', '-면', '-듯', '-성', '-까'로 종결되

1) '싶다'를 동사의 보어로 보는 견해도 타당성이 있다. 이런 맥락은 Bratt(1996)의 동사구 분석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런 유형을 보문(complement)보다는 서정수(1996a)에 제시된 부사결포유문의 개념으로 수용하여 부사류로 분류한다. 이런 분석은 '싶다' 구가 동사와 부사가 결합하여 동사구가 생성된다는 일반화를 포착하게 된다. 즉, '싶다'가 '-고', '-면', '-듯', '-성', '-까' 등의 어미로 종결되는 부사구와 결합하여 새로운 동사구를 생성하고 있다는 일반화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정수(1996a:1185-1289)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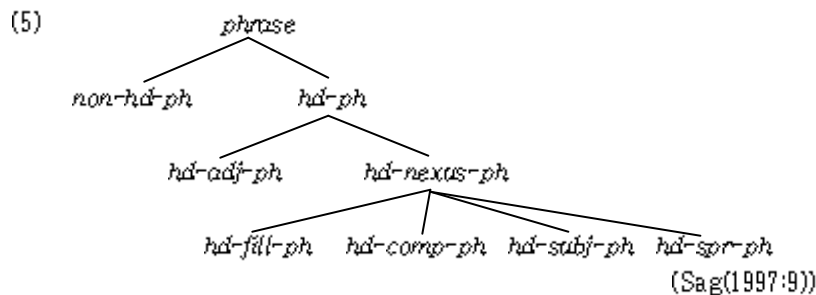
는 부사구와 결합하여 동사구를 구성한다.

'싶다' 구의 세 번째 특징은 화자가 주어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3a)에서 '싶다'는 1인칭 화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행위를 말할 때 사용한다. 이 경우 화자는 말하고 있는 자신을 지칭하며 주어와 동일인이다. 특히 희망을 '싶다'가 의미할 경우 주관적 심리작용이므로 당사자가 아니면 직접 말할 수 없다. (4a)가 비문법적인 이유도 화자와 심리이행자가 상호지시적(co-reference)이어야 한다는 동일주어제약을 어겼기 때문이고, (4b)가 문법적인 이유는 '싶다'가 실현되는 동일주어조건과 화자-지각자의 상호지시가 같기 때문이다.

- (3) a. 한라산에 한번 오르고 싶다.
- b. 한라산에 오르기를 (나는) 희망한다.
- (4) a. *영희는 눈이 올 듯 싶다.
- b. (나는) 눈이 올 듯 싶다.

3. 핵어문법의 제약

핵어문법은 구를 위계구조(hierarchy)에 따라 (5)와 같이 분류한다.



구는 핵어구(hd-ph)와 비핵어구(non-hd-ph)로 분류되며 핵어구는 다시 핵어부가어구(hd-adj-ph)와 핵어넥서스구(hd-nexus-ph)로 분류된다. 그리고 핵어넥서스구는 핵어중어구(hd-fill-ph), 핵어보어구(hd-comp-ph), 핵어주어구(hd-subj-ph), 핵어명세서구(hd-spr-ph)로 분류된다.

핵어구는 (6)의 핵자질원리와 (7)의 항가원리라는 제약을 준수한다.

(6) 핵자질원리(Head Feature Principle):

$$hd-ph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HEAD} \quad \boxed{1} \\ \text{HD-DTR} \quad \left[\text{HEAD} \quad \boxed{1} \right] \end{array} \right]$$

(7) 항가원리(Valence Principle):

$$hd-ph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SUBJ} \quad / \quad \boxed{1} \\ \text{SPR} \quad / \quad \boxed{2} \\ \text{COMPS} \quad / \quad \boxed{3} \\ \text{HD-DTR} \quad \left[\begin{array}{l} \text{SUBJ} \quad \boxed{1} \\ \text{SPR} \quad \boxed{2} \\ \text{COMPS} \quad \boxed{3}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핵자질원리는 핵어구에서 핵자범주(head daughter)에 있는 HEAD 값이 모범주(mother node)로 전달된다는 제약이다. 항가원리는 핵어구에서 핵자범주에 있는 주어 값, 명세사 값, 보어 값이 모범주로 전달된다는 제약이다.

구유형(phrasal type)은 (8)에 기술된 제약을 지킨다.

(B) 구유형(Phrasal Types):

유형 (TYPE)	제약 (CONSTRAINTS)	상위유형 (ISA)
<i>hd-ph</i>	Head Feature Principle Valence Principle SLIP, WHIP, ECC,	<i>phrase</i>
<i>hd-nexus-ph</i>	[CONT $\boxed{1}$ [HD-DTR [CONT $\boxed{1}$]]	<i>hd-ph</i>
<i>hd-comp-ph</i>	[COMP $\boxed{2}$ [HD-DTR [COMPS [FIRST $\boxed{1}$] [REST $\boxed{2}$]]] NON-HD-DTR [SYNSEM $\boxed{1}$]]	<i>hd-nexus-ph</i>
<i>hd-subj-ph</i>	[SUBJ <i>elist</i> [HD-DTR [SUBJ < $\boxed{1}$ >] NON-HD-DTR [SYNSEM $\boxed{1}$]]]	<i>hd-nexus-ph</i>
<i>hd-adj-ph</i>	[HD-DTR [SYNSEM $\boxed{1}$] NON-HD-DTR [HEAD MOD $\boxed{1}$]]	<i>hd-ph</i> & <i>non-clause</i>

핵어보어구는 모범주의 보어 값은 핵자범주의 보어 값과 비핵자범주의 보어 값이 결합한 후의 보어 값과 같다는 제약을 지키고, 핵어주어구는 핵자범주의 주어 값이 비핵자범주의 주어와 결합하여 모범주에 포화 (saturation)된다는 제약을 지키고, 핵어부가어구는 비핵자범주의 수식어와 핵자범주의 SYNSEM 값이 같다는 제약을 지킨다.

4 '싶다' 구조와 제약

한국어 '싶다' 동사가 결합하여 생성한 동사구를 핵어문법의 제약으로 설명하려면 먼저 '싶다'라는 동사가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이 동사가 결합하여 생성한 동사구가 어떤 제약을 지키는가를 살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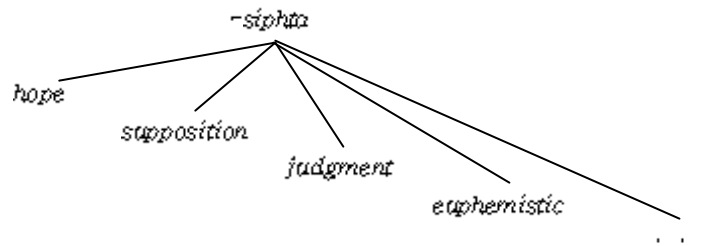
본 논문의 제 2절에서 '싶다'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즉, '싶다'는 의

미적으로 희망, 미확인 사실에 대한 추정, 주관적 사실에 대한 판단, 완곡한 표현으로 구분되며, 통사적으로 부사구와 결합하여 동사구를 생성하며 화자는 주어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4.1. '싶다'의 위계구조

'싶다'의 동사는 (1)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관계가 희망(hope), 미확인 사실에 대한 추정(supposition), 주관적 사실에 대한 판단(judgment), 완곡한 표현(euphemistic)으로 분류된다. 이를 핵어문법의 위계구조로 표현하면 (9)와 같다.

(9) Lexical Hierarchy of *siphata* (partial):



4.2. 부사어의 어휘목록(lexical entry)

'싶다'는 '-고', '-면', '-듯', '-나', '-까' 등으로 끝나는 부사어와 결합한다. '-고'는 희망을 뜻하는 '싶다'와 의미관계가 성립되고 '-면'은 완곡한 의미의 '싶다'와 의미관계가 성립되고 '-듯'과 '-까'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추정의 '싶다'와 의미관계가 성립되고 '-나'는 화자의 주관에 근거하여 판단의 '싶다'와 의미관계가 성립된다. 이들 부사어를 어휘목록으로 표기할 경우 희망을 뜻하는 '-고'는 (10)과 같이 기술한다.

(10) Lexical Entry of '-ko' :

$$\left[\begin{array}{l} \text{PHON } \langle ko \rangle \\ \text{CAT} \left[\text{HEAD} \mid \text{MOD} \left[\text{CAT} \left[\begin{array}{l} \text{verb} \\ \text{LEX} + \end{array} \right] \right] \right] \\ \text{CNT} \quad \boxed{1} \\ \text{CXT} \mid \text{BACKGROUND} \left[\begin{array}{l} \text{RELN } \textit{hope} \\ \text{SOA-ARG} \quad \boxed{1}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10)의 AVME에서 '-고'가 수식할 요소는 어휘동사 형태이고 이는 MOD 값에 표기되어 있다. '-고'의 의미 값은 CXT의 BACKGROUND 값에 기술된 SOA-ARG 값과 구조공유 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고'의 의미관계가 희망이라는 정보는 BACKGROUND 값에 RELN *hope*로 기술되어 있다.

완곡한 의미관계를 전달하는 '-면'의 어휘목록은 (11a)와 같고 화자의 주관에 근거하여 판단의 의미관계를 전달하는 '-냐'의 어휘목록은 (11b)와 같다.

(11) a. Lexical Entry of '-myen' :

$$\left[\begin{array}{l} \text{PHON } \langle myen \rangle \\ \text{CAT} \left[\text{HEAD} \mid \text{MOD} \left[\text{CAT} \left[\begin{array}{l} \text{verb} \\ \text{LEX} + \end{array} \right] \right] \right] \\ \text{CNT} \quad \boxed{1} \\ \text{CXT} \mid \text{BACKGROUND} \left[\begin{array}{l} \text{RELN } \textit{euphemistic} \\ \text{SOA-ARG} \quad \boxed{1}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b. Lexical Entry of '-ni' :

PHON	<ni>												
CAT	HEAD MOD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CAT</td> <td style="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right: 5px;">verb</td> <td style="padding-right: 5px;">]</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right: 5px;">LEX +</td> <td style="padding-right: 5px;">]</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CNT</td> <td style="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right: 5px;">②</td> <td style="padding-right: 5px;">]</td> </tr> </table>	CAT	[verb]		[LEX +]	CNT	[②]
CAT	[verb]										
	[LEX +]										
CNT	[②]										
CNT	①												
CXT BACKGROUND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RELN</td> <td style="padding-right: 5px;">judgment</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SOA-ARG</td> <td style="padding-right: 5px;">①</td> </tr> </table>	RELN	judgment	SOA-ARG	①								
RELN	judgment												
SOA-ARG	①												

(11a)에서 '-면'이 완곡한 의미를 전달한다는 정보가 CXT의 BACKGROUND 값에 *euphemistic*로 표기되고 (11b)에서 '-냐'가 개인적 판단을 나타낸다는 정보가 *judgment*로 표기되어 있다.

4.3. '싶다'의 어휘구조(Lexical Structure)

한국어 '싶다'의 의미관계는 (9)의 위계구조에서 보듯이 희망, 추측, 주관적인 판단, 완곡한 표현의 4가지로 분류된다. 의미관계가 희망으로 분류된 '싶다'의 어휘구조는 (12)와 같다.

(12) PHON	<sipta>								
CAT	SUBJ <①>								
	COMPS <②>								
CNT	③								
CXT BACKGROUND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RELN</td> <td style="padding-right: 5px;">hope</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HOPER</td> <td style="padding-right: 5px;">①</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HOPEE</td> <td style="padding-right: 5px;">②</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SOA-ARG</td> <td style="padding-right: 5px;">③</td> </tr> </table>	RELN	hope	HOPER	①	HOPEE	②	SOA-ARG	③
RELN	hope								
HOPER	①								
HOPEE	②								
SOA-ARG	③								

(12)에서 '싶다'가 희망을 나타내는 의미관계이라는 정보가 CXT의 BACKGROUND 값에 표기되어 있고 희망을 나타내는 사람(HOPER)이 지

표 11로 주어와 구조공유하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희망의 대상(HOPEE)이 보어 값과 지표 2로 구조공유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희망의 SOA-ARG 값은 '싶다'의 의미 값과 지표 3으로 구조공유한다.

'싶다'가 추측의 의미관계일 경우 어휘구조는 (13a)와 같고 주관적 판단의 의미관계일 경우 어휘구조는 (13b)와 같고 완곡한 표현의 의미관계일 경우 어휘구조는 (13c)와 같다.

(13) a. Lexical Structure of *siphda* on supposition's meaning(partial) :

CXT BACKGROUND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right: 10px;">RELN</td> <td><i>suppose</i></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SUPPOSER</td> <td>1</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SUPPOSEE</td> <td>2</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SOA-ARG</td> <td>3</td> </tr> </table>	RELN	<i>suppose</i>	SUPPOSER	1	SUPPOSEE	2	SOA-ARG	3
RELN	<i>suppose</i>								
SUPPOSER	1								
SUPPOSEE	2								
SOA-ARG	3								

b. Lexical Structure of *siphda* on judgment's meaning(partia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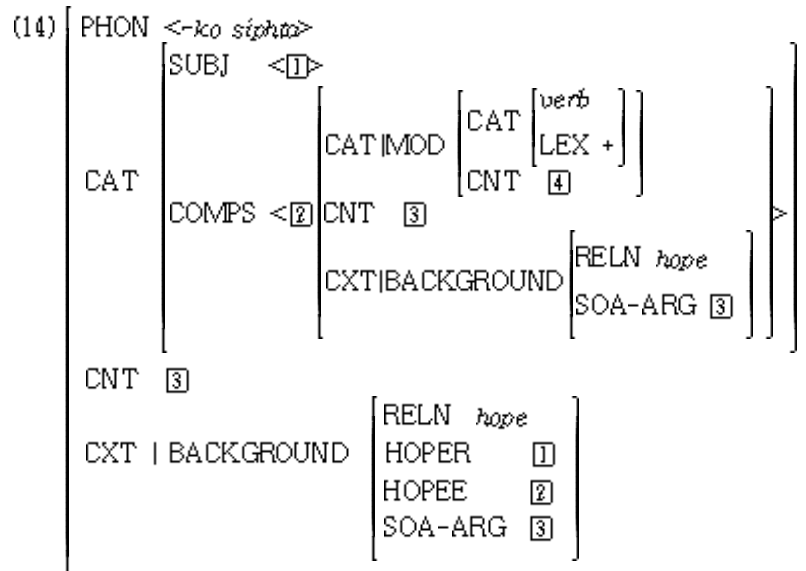
CXT BACKGROUND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right: 10px;">RELN</td> <td><i>judge</i></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JUDGER</td> <td>1</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JUDGEE</td> <td>2</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SOA-ARG</td> <td>3</td> </tr> </table>	RELN	<i>judge</i>	JUDGER	1	JUDGEE	2	SOA-ARG	3
RELN	<i>judge</i>								
JUDGER	1								
JUDGEE	2								
SOA-ARG	3								

c. Lexical Structure of *siphda* on euphemistic's meaning(partial) :

CXT BACKGROUND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right: 10px;">RELN</td> <td><i>euphemize</i></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EUPHEMIZER</td> <td>1</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EUPHEMIZEE</td> <td>2</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SOA-ARG</td> <td>3</td> </tr> </table>	RELN	<i>euphemize</i>	EUPHEMIZER	1	EUPHEMIZEE	2	SOA-ARG	3
RELN	<i>euphemize</i>								
EUPHEMIZER	1								
EUPHEMIZEE	2								
SOA-ARG	3								

'싶다'의 어휘가 부사구와 결합하여 동사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연결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핵어문법은 동사와 부사의 결합을 MOD라는 자질을 이용하여 설명한다.²⁾ 이 MOD라는 자질을 이용하여 부사 '-고'와 희망의 의미관계로 구분된 '싶다'의 결합으로 생성된 '-고 싶다'의 구조는 (14)와 같다.

2) 자세한 내용은 Pollard & Sag(1994: 55-57)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14)의 구조에서 지표 ②로 표기된 COMPS 값은 부사 '-고'의 정보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다. '-고'는 MOD 자질을 가지며 이 MOD 값으로 어휘동사를 수식하게 한다. 부사와 다른 구가 결합할 경우 핵어문법은 의미원리(Semantic Principle)³⁾에 의해서 동사의 CNT 값인 지표 ④가 아니라 부사의 CNT 값인 지표 ③이 모범주로 전수된다.

4.4. '싶다'의 구조와 제약

핵어문법의 제약으로 한국어의 '싶다'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싶다'와 관련된 위계구조, 부사어의 어휘목록, '싶다'의 어휘구조를 살펴보았다. '-고', '-면', '-듯' 등으로 끝나는 부사어구와 '싶다'가 결합하여 생성한 동사구는 핵어-부가어구에 해당되므로 (15)의 핵어-부가어구 제약을 지켜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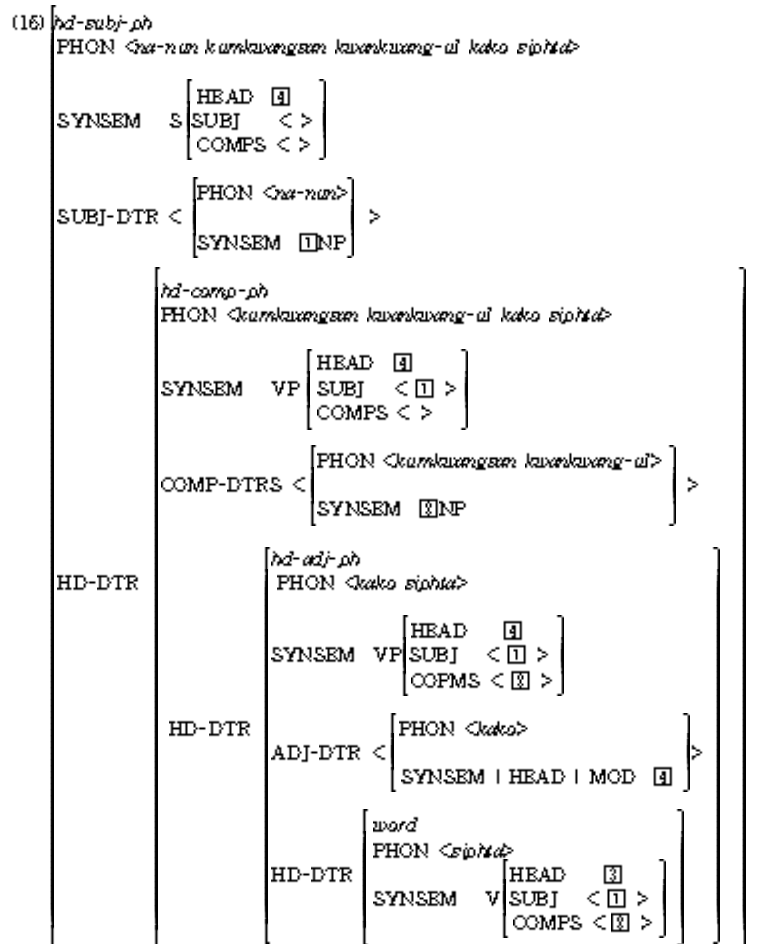
3) 핵어문법의 의미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ollard & Sag(1994: 48)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15) 핵어-부가어구 제약(Head-Adjunct Phrase Constrai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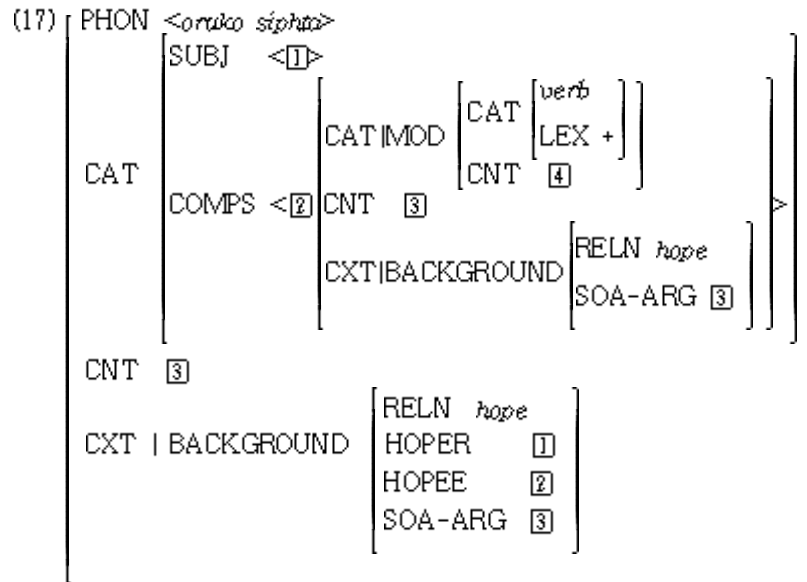
$$hd-adj-ph \Rightarrow \left[\begin{array}{l} HD-DTR \left[SYNSEM \text{ ㉒} \right] \\ ADJUNCT-DTR \left[HEAD \mid MOD \text{ ㉓} \right] \end{array} \right]$$

(15)의 제약은 부사어를 포함하여 부가어의 자범주가 가지는 MOD 값이 핵자범주의 SYNSEM 값과 구조공유하여 동일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제약이다. '나는 금강산 관광을 가고 싶다'의 예문으로 핵어-부가어구 제약이 '싶다'의 구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핀다.

(16)에서 '가고 싶다'는 핵어-부가어 구이기 때문에 부가어 자범주의 MOD 값인 지표 ㉓가 모범주 SYNSEM 값에 기술된 HEAD 값에 전수된다. 따라서 (16)의 예문은 (15)의 핵어-부가어구 제약을 지키고 있다. 또 (16)의 구조에서 핵자범주의 SUBJ 값과 COMPS 값이 항가원리에 의해서 상위범주에서 포화된다. 같은 방법으로 '내 모자가 좀 작은 듯 싶다', '하나들 보면 그 사람 전부들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싶다', '나는 네가 좀 참아주었으면 싶다'의 구조도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어의 '싶다' 구조에서 화자는 주어와 일치한다는 특징을 설명한다. 즉 '한라산에 한번 오르고 싶다'의 의미는 '한라산에 오르기를 (나는) 희망한다'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 때 말하는 사람이 주어와 같다는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말하는 사람이 주어와 같다는 정보를 구조공유로 설명한다.



(17)의 구조에서 '-고'와 결합한 '싶다'의 의미는 희망을 나타내고 희망을 나타내는 HOPER 값이 주어와 지표 [1]로 구조공유하고 바라는 사람이 주어라는 정보를 의미한다.

5.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싶다' 구조를 핵어문법의 제약이론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였다. 이런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싶다' 구조를 분석할 경우 4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싶다' 구조에 대한 연구가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싶다' 구조가 부사구와 결합하여 동사구를 생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동사구조가 부사구와 동사의 결합이라는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고 체계성을 포착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핵어문법에서 제시된 제약으로 '싶다' 구조를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이 문법의 수월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네 번째로 주어와 발화자를 동 지표(co-index)로 구조공유 시켜 '싶다'의 문장을 발화하는 사람이 주어와

같이야 한다는 주장을 해결하였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싫다'는 사람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희망, 추정, 주관적 사실판단, 완곡한 표현이라는 4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해결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서정수(1996a)의 부사절포유문의 개념을 수용하여 '-고 싶다'의 구조가 핵어보어구가 아니고 핵어부가어구이라고 전제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서정수 (1996a).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서정수 (1996b). *현대 한국어 문법 연구의 개관*. 한국문화사.
 조준호 (1998). *핵어문법에 입각한 동명사구의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Bratt, E. O. (1996). *Argument Composition and the Lexicon: Lexical and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Ginzburg, J., & Sag I. (1998). English Interrogative Constructions. Draft, Stanford University.
 Goldberg, A. E.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ay, P. & Fillmore J. C. (1997). Grammatical Constructions and Linguistic Generalizations: the *What's X doing Y?* Construction. Draft.
 Pollard, C. & Sag I.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ag, I. & Carl P. (1991). An Integrated Theory of Complement Control. *Language*, 67, 63-113.
 Sag, I. (1997). Deconstructing Phrasal Construction. Draft, Stanford University.
 Sag, I. (1997). English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Journal of Linguistics*, 33, 431-84

조준호
 545-704 전남 광양읍 덕례리 199-4
 한려대학교 외국어정보관광학과
 전화: (061)760-1118, 1113
 이메일: jhcho@hanlyo.ac.kr